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4/5월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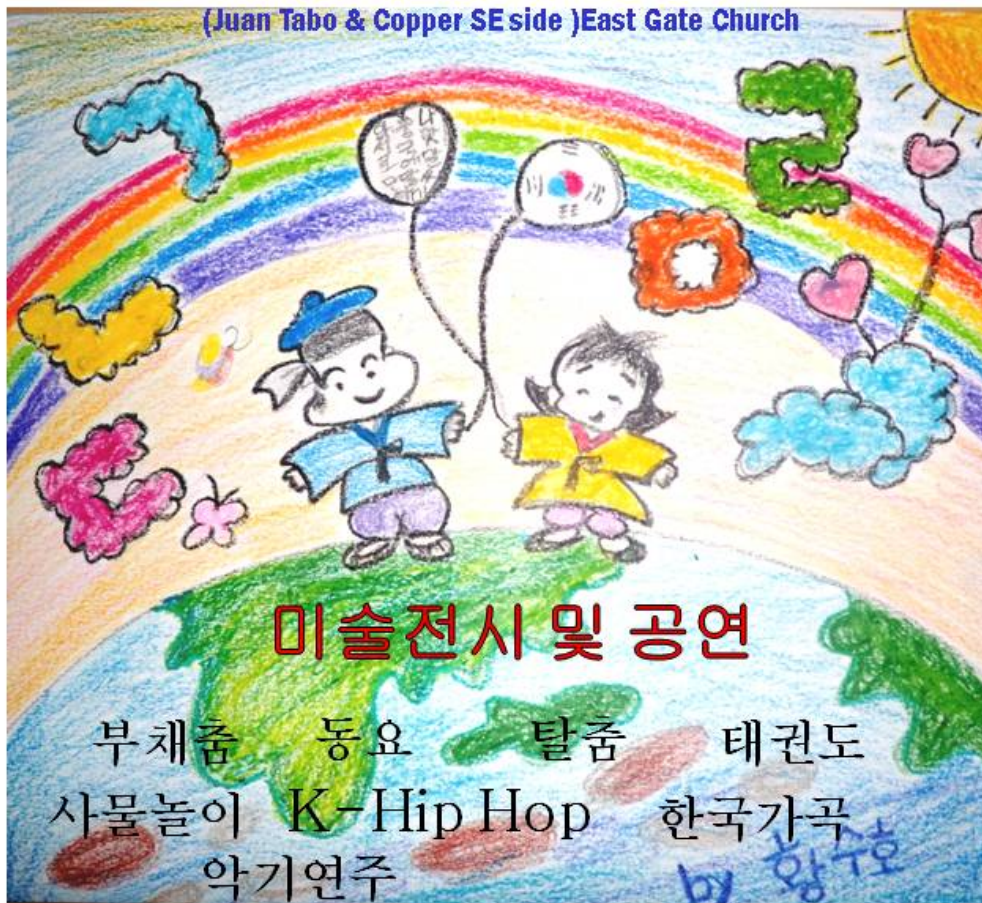
## 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뉴멕시코한국학교 후원을 위한 문화의 밤

Saturday, May 12<sup>th</sup> 2012 at 5:30pm

12120 Cooper Ave. NE ABQ NM 87123

(Juan Tabo & Copper SE side )East Gate Church



뉴멕시코주 한인회 협찬

후원  
 김두남 한인회장  
 임낸시 한인회 부회장  
 아리랑 마켓  
 A-1 마켓  
 Kim's market  
 김영신 부동산  
 이준 부동산  
 최귀분 부동산  
 박파인아트

레인보우치과 (황경성)  
 뉴 라이프 한의원 (Dr. 장)  
 Kim Master Barber Shop  
 Nob Hill Barber (Sunny)  
 Jasmine Café  
 Huong Thao  
 다이나믹 태권도  
 정헤어살롱 (홍정희)  
 Sizzler 식당  
 Sushi & Sake

Ticket \$ 10

티켓구입 - 각 마켓

아리랑, 김스, A-1

문의- 515-4211

공연후 간단한 저녁식사가 있습니다.

**Festival of Asian Cultures  
2012**

Sunday May 20, 10:30 a.m - 4 p.m.  
Harry E. Kinney Civic Plaza  
**FREE ADMISSION**

**Music • Dance • Food • Educational Activities**

Participating Cultural Groups Include:  
*Cambodian, Chinese, Filipino, Hawaiian, Indonesian,  
Japanese, Korean, Lao, Middle Eastern, Nepali,  
Tahitian, Thai, Vietnamese and more!*

For Information: 505.332.9249, 505.507.2179 or 311  
(NM relay or 711)  
[www.cabq.gov/cultural-services](http://www.cabq.gov/cultural-services)

Presented by Asi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and the City of Albuquerque.  
Funding by Urban Enhancement Trust Fund and New Mexico Arts.  
Cosponsored by Ta Lin International Market.

Sponsorships and Donations Visit:  
[www.aaanm.us](http://www.aaanm.us) or call 505.332.9249

1. **한국학교 후원 문화의 밤 행사**가 5월 12일 오후 5시 30분에 East Gate Church에서 있습니다. 외국생활을 하면서도 한국의 일과 문화, 언어를 잃지 않고 계승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열정과 수고가 담겨진 이 시간을 기억해 두셨다가 꼭 참석해 주십시오. 태권도, 부채춤, 가곡, 힙합댄스, 탈춤, 동요, 미술전시, 사물놀이, 악기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판매되는 티켓(\$10, 각 한국마켓)과 수익금은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해 쓰여집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 505-515-4211 이선아교장)

2. 지난 3월 31일 12시에서 오후 4시까지 라스크루시스 New Mexico State University Corbett Center에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한인회 이사이신 김명주 교수와 Michael-Sean Hong O'Donnell, 김영심씨께서 한국전통 물품을 전시하고 대보름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했습니다.

3. **어버이회 모임**이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수요일 모임은 김영신 이사장님택에서 모였습니다.



4.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3.28~4.2)재외동포 투표에서 5만 6천 명이 투표에 참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공관별 통계)

국가별	공관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비고
			누계	1원차	2원차	3원차	4원차	5원차		
합계		123,571	56,456	7,160	6,674	8,320	11,267	11,976	11,059	45.69
미국(대)		2,014	885	81	73	140	270	211	110	43.94
뉴욕(총)		4,606	1,745	193	208	290	374	362	318	37.89
로스앤젤레스(총)		4,475	2,373	319	324	385	495	428	422	53.03
보스턴(총)		1,986	867	69	78	112	244	262	102	43.66
샌프란시스코(총)		2,010	1,033	75	93	129	364	238	134	51.39
지애틀(총)		2,068	678	89	62	78	174	169	106	32.79
지카고(총)		2,030	937	61	66	91	404	219	96	46.16
애틀랜타(총)		1,583	774	74	71	77	275	162	115	48.89
호놀룰루(총)		813	410	92	51	55	75	71	66	50.43
휴스턴(총)		1,125	440	42	24	52	147	116	59	39.11
앵커리지(총)		78	55	0	0	14	11	14	16	70.51

**한인 천주교 성령 안의 새 삶 세미나**  
**날짜 : 6월 31일(토) - 7월 3일(화)**  
**장소 : 마돈나 피정센터**

**한인 천주교 "Garage Sale"**  
**날짜: 4월 28일 (토) 6:00 AM - 1:00 PM**  
**장소: 9209 Bluewood LN NE**  
**Albuquerque, 87122**  
**오징어 채 무침 판매 합니다**  
**(전화 주문 가능)**  
**장 루피나 (505) 503-9846**

## 동경 노숙자 선교

박인배 목사

윤목사님, 오랜만에 문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안식년에서 돌아온후 계속적으로 3/11 토호쿠 재해지원 그리고 노숙자 사역으로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갔네요. 일본은 지난해의 재해로 아직도 사실상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설주택에서 정부의 보조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그래도 형편이 많이 나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경의 노숙자 사역은 이전이나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바뀐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빵을 나눠주던 사역에서 소규모 그룹사역으로 바뀌어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개인 한사람 한사람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도 내지는 제자훈련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반면 동경 4개 주공원과 대형역 주변으로 선교지역을 확대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각 SMALL GROUP을 SIDEWALK CHURCH로 명명해 그룹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SIDEWALK CHURCH 확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그동안 한번도 NEWSLETTER도 보내질 못했습니다. 토호쿠재해지원 과 노숙자사역 사진 몇장을 첨부하며 알버커키 교역자 한분 한분께 이 글을 대신해 안부를 전합니다.



동경에서,  
박인배드림(parkmail@gmail.com)  
PS: 마지막 사진 Ms.도도씨는 40살된 독신여성으로  
쓰나미로 파손된 집을 수리해주며 제가 전도해 예수님  
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진배경의 자신의 집  
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에세이-

## 알러지 시즌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해마다 삼 월이면 매혹의 땅 뉴멕시코 인구의 약 반이  
눈에 보일락말락 미세한 가루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곤  
육을 치른다. 여러 가지 나무가 같은 시기에 꽃을 피  
우지만 말썽을 부리는 주범은 노간주나무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측백나무 과의 상록교목인 노간주나무가  
초순에 녹색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일주일 후쯤  
노란색 꽃가루가 마치 독가스처럼 뿜어져 나오고, 날  
마다 불어대는 봄바람이 꽃가루를 산지사방으로 흩어  
놓는다. 그 가루는 벨크로 같은 작은 분자로, 공기 중  
에 떠다니기도 하고 나뭇잎이나 옷가지에 달라붙어 있  
기도 한다.

운이 좋은 반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  
지 않는 그 꽃가루가 지난 해 나를 아주 심하게 괴롭  
혔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증상을 속속들이 알  
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어서 콧물이 흐르며 몸이 으슬으슬하기까지 해서 감기  
를 의심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채기를 연발  
하면서 피까지 섞인 콧물이 줄줄 흐르고, 밤에는 숨이  
막혀 잠들 수가 없어지며, 뜯눈으로 밤을 새운 아침이  
면 눈은 가렵고 얼굴은 부어있다. 말년에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여길 왔는데 이 무슨 날벼락인가.

내 몸이 알러지를 일으킨 것이다. 어떤 종류의 물질을  
섭취하거나 그것에 접촉되면 몸 안에 항체가 만들어진  
다. 같은 물질을 다시 섭취하거나 접촉하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며, 그것을 면역반응이라고 한다. 대부  
분의 면역반응은 생체에 이롭게 진행되어 외부로부터  
침해를 방어해주는 것인데, 반응에서 생긴 물질이 오  
히려 몸에 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수도 있다. 대개 갑  
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질병을 알러지라고 부르며,  
과민반응 또는 이상과민증이라고도 한다. 꽃가루 음식  
동물 따위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과민하여 두드러기 식  
증독 비염 천식 화분병 등이 나타나고, 때로는 치료의  
목적으로 주사하거나 섭취한 약물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통 사람에 비하여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기 심상인 사람은 과민성체질을 가진 사람이다.  
어렸을 적 몇 번인가 두드러기가 났던 것으로 보면 나  
도 과민성체질인가. 하지만 20여 년 전 교환교수로 오  
레곤 주립대학교에 체류할 때, 밀밭 한가운데에 위치  
한 코벨리스에서 아내는 밀꽃가루 알러지로 고생했지  
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알러지  
에 관하여 물으면 반드시 페니실린에 과민하다고 일러  
주어야 하는 아내는 다행히 여기 앨버커키에서는 멀쩡  
하다. 설마 꽃가루가 나를 괴롭히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나여서 처음 걸려들었을 때 감기인 줄만 알고 능  
장을 부리다가 대가를 툭툭하게 치렀다.

알러지에 먹는 약 '저텍'은 슈퍼마켓 약품코너에서 해  
열제나 소화제처럼 손쉽게 살 수 있다. 수백 알이 든  
약병이 진열되어 있기도 한데, 그것은 알러지 시즌이  
시작되었다 하면 한 달도 넘게 가는데다가 한 집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먹어야 하는 경우를 위해서일 터.  
이 약은 항히스타민제로 항원-항체반응에서 만들어져  
증상을 유발하는 주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먹기도 쉬워서 작은 알 하나를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두면 된다. 먹은 후 졸음이 오  
는 경우도 있어서 운전이 주의하라는 경고도 있으나  
심하지는 않다. 이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싶으면 바로 복용하기 시작  
하여 시즌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알러지나'도 처방전 없  
이 살 수 있다. 조그마한 병에 든 물약인데, 병뚜껑에  
붙어있는 피펫으로 하루에 세 번 혀 밑에다가 여남은  
방울씩 떨어트리라고 지시되어 있다. 자생하는 목초  
나무 잡초 등이 비슷한 네 개의 주 애리조나 콜로라도  
유타 뉴멕시코의 120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알러지원  
으로 만든 동종요법 약이다. 동종요법은 약 200년 전  
독일의 의사 새뮤얼 하네만이 창시한 치료법으로, 질  
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아주 소량씩 몸 안으로 넣어주  
어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알러지나를 면역력  
을 향상시켜 알러지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약  
품이다.

이른 봄 알러지로 곤육을 치른 내 몸이 늦가을에 또  
한 번 시달렸다. 이미 경험한지라 재빨리 대처하여 심  
하게 당하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번번이 당하고만 있  
어서는 안 된다 싶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앨버커키  
주변에 서식하는 식물 가운데 꽃가루를 많이 내뿜는  
나무는 뽕나무 노간주나무 느릅나무 물푸레나무 코튼  
우드 등이며, 노간주나무는 가을에도 꽃을 피우고, 사  
방에 널려 가을이면 샛노란 꽃으로 불모지를 한결 아  
름답게 만드는 세이지 브러시도 많은 꽃가루를 내뿜는  
다는 것이다. 노간주나무와 코튼우드는 내 집 뒷마당  
에도 있으며, 집밖으로 나가 몇 발작만 걸으면 세이지  
브러시를 심어놓은 정원도 있다.

꽃가루 알러지는 콧속에서 일어난다. 콧속은 부비강에  
연결되어 있어서 증상이 심하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진  
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에 접촉되지 않으려면  
숨을 쉬지 않아야 하는데, 오래 멈출 수도 없고 덜 설

수도 없는 것이 숨이라 다른 방도를 찾는 수밖에. 큰 병을 앓아본 적은 없으나 나는 스스로를 허약체질로 치부한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였던가 위장병을 끼고 살아왔다. 꽃가루 따위에 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허약체질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여 저항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처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절제된 삶과 운동 그리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약의 복용 등으로 내 체질을 바꿔보기로 했다. 공기가 맑고 항상 건조하며 연중 햇볕이 짹짹 내려 쬐는 날이 많아 예부터 천혜의 요양소로 알려진 앨버커키에서 자연과 더 많이 접하며 사는 혜택에 비하면 앨러지쯤 앓는다고 무슨 대수냐는 마음으로. <2012. 2.>

##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

김준호 장로



뒷 마당의 살구 꽃



쌍둥이 벚꽃

지난주에 종려주일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가 되었다. 또한 부활주일 새벽에는 교역자협회 주관으로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알버커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려고 한다. 하나님도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는다.

벌써 크로코스과 개나리꽃이 피어서 봄이 왔음을

자랑하고 있다. 이때가 되면 으레 우리 뒷마당에 살구 꽃들도 만발하여 마치 누구한테 뒤지지 않으려는 듯 자기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도 한다. 늘 살구꽃이 필 때면 금년에는 언제 꽃샘추위가 와서 그 나무가 보였던 그 아름다움과 또 열매를 무참하게 짓눌러 시들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우리집 살구나무는 이름도 회안해서 Sweet Heart라고 한다. 이 나무는 어느 nursery에서 특허 받은 것인데 보통 살구 맛과 다르고 그 씨가 almond와 비슷해서 먹기도 한다. 누가 말했는지는 몰라도 펄 먹고 알 먹고가 아니고 살구 먹고 씨 먹고 한다. 우리교회 어떤 성도는 그 살구맛에 반해서(?) 그 나무를 사서 키우는 분도 있다.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Sweet heart란 별명이 붙은 듯 하다. 그런데 Bing cherry 꽃도 하도 예뻐서 자랑삼아(?) add했다. 이 나무를 살 때 그들의 말은 cherry는 self pollination이 안 된다고 해서 쌍으로 심었다.

복숭아꽃 살구꽃(?), 봄이 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이 노래는 우리 감리교회 이경화 장로님 아버지이신 이원수 선생님이 작사하신 유명한 고향의 봄 가사이다.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원수선생님과 이장로님과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알지 못했다. 우리들은 아주 막연한 사이였지만 등잔 밑이 어두었나보다. 도대체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작년에 그분의 100 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한국 방문을 하고 돌아왔다. 그분은 아동문학가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고 많은 동시와 소년소설과 수필들을 남겨놓으신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가 와서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인지 여기저기에 말해주고 있다. 한편 신약 성경, 특히 4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 나는 오래 전에 찾았던 것을 다시 요약해 보고자 한다.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Indian School Rd  
Americas Pkwy  
Louisiana Blvd  
Marriott Dr  
Americas Pkwy  
I-40

# Japanese Kitchen

##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지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652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84.8937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1 번: 미가서 5:2절에 보면 “베들레헬 에부라다 야. 너는 유대 종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라고 했고, 마태복음 2:1-6절과 누가복음 2:1-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헬에서 탄생 했다고 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은 에부라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헬을 말한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5 mile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서북쪽 약 7 mile 지점에 또 다른 베들레헬이 있으므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곳은 에부라다에 있는 베들레헬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이다. 미가는 주전 742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 예언은 깜작 놀랄 사실이 아닐 수 없다.

2 번: 이사야 7:14 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마태 1:18-25절, 누가 1:26-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음을 알수 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3 번: 신명기 18:2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하였는데 요한 7: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라고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고백하였다.

4 번: 스가랴 9:9-10절과 요한복음 12:12-16절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불후의 명곡 Handel의 메시아 곡 중 제16번은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사용하여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찌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 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마치 천사들이 외치는 듯한 인상을 준다.

5 번: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 하는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이사야는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고통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했을까 놀라게 한다.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전 700년 전에 말이다. 또 인용 하지만 Handel의 메시아 곡 중에 제 21번, 22번, 23번, 24번, 그리고 29번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통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으로 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정에서 침묵을 지키며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등등----- . 정말 이사야 53 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 최고로 손꼽을 수 있는 말씀 중의 말씀이라고 생각 된다. 문체를 보면 너무 또렷하게 보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된 것도 특징이다. 나는 아사야 53 장을 읽으면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몽클해지고 눈물이 나올 때도 있다. 한편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 총독과 백성들 간의 대화와 그를 조롱하며 침뱉고 아우성치는

장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던 장면과는 너무 달라서 사람의 간사한 면도 있음을 보여 준다.

6 번: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바 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18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16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간 따르던 제자로써 자기 선생님을 배신하고 은 30량에 팔아 버리는 배은망덕한 짓을 했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7 번: 이사야 53: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 마태복음 27:12-14절과 누가복음 23:8-10절에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있다.

8 번: 시편22:14, 16-17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데 마태 27:31, 마가 15:20절에 그 처절한 모습이 있는 것이다.

9 번: 이사야 53:12절에는 범죄자들과 함께 고통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태 27:38절과 마가 15:17절에 강도들과 함께 처형 되었다고 했다.

10 번: 시편 22:18절에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했는데 마태 27:35절 요한복음 19:23-24절에 정말 그같이 했다고 있다.

11 번: 이사야 53:9절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예언했는데 요한복음 19:38-42절에 은밀하게 믿었던 부자였던 아리마데 요셉이 니고데모와 함께 주님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안장했다고 나와 있다.

12 번: 시편 16:9-11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자기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거룩한 자를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25-28절에 또 바울은 13:35-37절에서 이 시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인용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뜻이 있고 영생을 약속해 주는 보배로운 말씀이기도 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첫 부활주일 새벽, 마가 16:9-11절, 요한 20:11-18절), 다른 여자들(마태 28:9-10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첫 부활 주일 오후, 마가 16:12-13절, 누가 24:13-35절),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첫 부활 주일 저녁 누가 24:36-43절, 요한 20:19-25절),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일주일 후, 요한 20:26-31절),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역하신 일들은 고기를 잡던 일꾼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시고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

로에게 그의 충심을 다짐받기도 하셨고(요한 21:1-25절) 또 500 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6절에 있다. 예수님의 승천 기사는 마가 16:19절, 누가 24:50-53절 그리고 사도행전 1:3-9절에 나와 있다.

13 번: 이사야 53:10-11에 메시아는 믿는 이들을 위해서 속전제물이 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16절과 사도행전 16:31에서 이 사실이 확인된다.

14 번: 시편 110: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이 시편기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한다. 그런데 마가복음 16:19절에 있듯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까지 구약에 14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신약에 그 성취된 구절들을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주님의 재림이다. 다급한 요즘 세상에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냐, 또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가족도 꼭 함께 가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될 것이냐 등등 궁금한 것이 많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내가 아니라 목사님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나는 내 나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재림, 말을 바꾸면 종말론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은 다른 서적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늘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

## 귀납적 방법에 의한 골로새서 1장2절 주석

김기천 목사

**구절 1:2** 골로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 어다)

### ☞ 구절 관찰 해석

**1:2 “골로새”**는 어떤 도시인가(용어-배경-장소):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길리기아(Cilicia)와 수리아(Syria)에 이르는 통상로에 있었던 도시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져 있었으며 라이커스(Lycus)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던 도시였다. 이 지역을 흐르던 라이커스 강물은 라이커스 골짜기를 따라 흐르다가 갑자기 땅이 갈라진 틈으로 쏟아져 사라져 버리고 땅속에서 약 930미터 정도 흐르다가 다시 땅위에 드러나서

메안더(Maeander) 쪽으로 흘러갔다. 도시 골로새는 라이커스 강물이 사라져 버리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sup>1)</sup>. 소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화산 지대로서 지진 활동이 있었지만 골로새에는 지진이 특히 심했다. 결국 주후 66년경 지진으로 인해 골로새는 라오디게아(Laodicea)와 히에라폴리(Hierapolis)와 함께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골로새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힘들다. 한때에는 헤로도투스나 크세노폰(Xenophon)이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의 번영과 위대함을 노래할 정도로 큰 도시였지만 나중에 라오디게아를 통과하는 더 좋은 통상로가 생기므로 바울 당시 골로새는 많이 기울어져 부르기아(Phrygia)지방에 속하는 한 작은 도시에 불과하였다. 기원 후 62년경에 골로새에는 유대인만 약 11,000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아마도 주전 200년 전 안티오쿠스(Antiochus) 3세와 4세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게 된 것 같다. 골로새는 땅이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목양업이 잘되어 면제품 공업이 발달하였고 화산 영향으로 풍부한 화학 성분이 들어 있는 라이커스 강물은 옷감을 염색하는 데에 적합했기 때문에 염색 옷감 무역이 매우 활발하였다. 이 당시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와 함께 최고의 염색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도시로 이름이 나 있었다. 당시 통상로에 위치했던 골로새는 여러 사상과 종교들의 교차로였다. 이런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골로새 교회가 이단 종교들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

**1:2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었는가(용어-관계-설명):** 골로새를 통과하던 통상로가 라오디게아로 옮긴 후부터 골로새의 번영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여행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이 골로새보다는 라오디게아를 통하는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골로새 주변 도시인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가 큰 도시로 성장했다. 바울 또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라오디게아를 통과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다. 결국 골로새서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다.

**1:2 “거룩하고 신실한”**은 올바른 번역인가(구절-문법-설명): 여기서 “거룩한”(ἀγίους:하기오이스)이란 형용사가 정관사 τοῖς(토이스)와 결합하면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어 “성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sup>2)</sup> 그런데 정관사 τοῖς(토이스)는 여격 명사 “형제들”(ἀδελφοῖς:아델포이스)에 관계된 것으로 보면 그 가운데 있는 형용사 “거룩한”(ἀγίους:하기오이스)과 “신실한”(πιστοῖς:피스토이스)은 “형제들”을 수식하는 것이 된다. 시리아 성경(Syriac)과 라틴어 성경(Vulgate)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3)</sup> 이런 의미에서 본 구절 “거룩하고 신실한”이란 번역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1:2 본 절에 “거룩한”과 “형제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용어-관계-설명): “거룩한”은 골로새 형제들의 신앙적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 본래 “거룩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ἅγιοι(하기오이)는 신성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용어로 “신에게 바쳐진, 순수

1) Herodotus, *History*, 7.30

2) 영어성경 King James Version이나 Revised Standard Version이 이런 번역을 따른다.

3) 영어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깨끗한, 완전한”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적용한다면 “거룩한 형제들”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써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크리스천들을 가리킨다. 또한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다.

**1:2** 본 절에 “신실한”과 “형제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용어-관계-설명): “신실한”역시 골로새 형제들의 신앙적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신실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πιστός(피스토이스)는 형용사로 “믿음직한, 충성스런”이란 뜻을 지닌다. 이 용어는 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일을 맡은 종들이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본 절에 “신실한 형제들”이란 표현은 곧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골로새 교인들 또한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킨다. 바울은 뒤에 1:7절에서 골로새 교회 내에 대표적인 신실한 일꾼으로 에바브라를 거명하였다.

**1:2** 본 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란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구절-의미-설명): “안에”란 전치사 ἐν(엔)에 따라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장소의 의미이고 둘째로 수단의 의미이고 셋째는 연합의 의미이다. 장소의 의미일 경우 “그리스도”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한다. 본 구절은 골로새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분하며 특히 골로새서를 읽어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로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편지라기보다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인 것이다. 둘째로 전치사 ἐν(엔)을 수단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수단의 의미가 되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란 의미가 된다. 그러면 본 구절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고 신실하게 된 형제들”이란 의미가 된다. 셋째로 연합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구절이 연합의 의미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된”이란 의미가 된다. 이 경우는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된 형제들”이란 의미가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구절을 연합의 의미로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본 구절도 연합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골로새 교인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한 몸이다.

**1:2** 왜 바울은 골로새서 수신자를 “형제들”이라고 불렀는가(용어-의미-설명): 바울은 앞 절에서 디모데를 “형제”라고 불렀고 또한 본 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서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에 긴장 관계에서 볼 수 있다. 현재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단 교사들에 의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과 친숙한 사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 골로새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 본 서신을 쓴 것이다. 만일 바울이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형제들”로 불렀다면 그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과 수직적인 교권 관계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관계임을 부각시키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서로 형제자매들이다. 이런 형제 관계 속에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 만형 즉 장자의 권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은 연약한 동생들을 돌보는 만형과 같이 장자의 권위로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본 서신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1:2** “골로새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에게”는 본 서신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구절-형식-설명): 본 구절까지가 골로새서의 첫 문장이 끝나는 셈이다. “형제들에게”란 용어 뒤에는 “편지하다”란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본 구절은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수신자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사람들은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형제자매들이며 또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직한 형제자매들이다.

**1:2** 본 절에 “형제들에게”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구절-관계-설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구절은 바울이 앞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 근거가 된다. 여기서 “우리”란 바울이나 디모데 뿐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도 포함하는 말이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도 형제라고 부르고 골로새 교인들도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이유는 자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었다.

**1:2** “은혜와 평화”란 구절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구절-형식-설명): 본 구절은 골로새서에서 인사말에 해당한다. 바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인사법과 유대인들 인사법이 달랐다. 헬라 사람들은 “은혜가 있기를”이란 인사말로 χαίρε(카이레) 또는 χαίρειν(카이레인)이라고 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평화가 있기를”이란 인사말로 εἰρήνη(샬롬)이란 표현을 썼다(참고, 단 4:1). 이런 당시의 관습을 적용한다면 본 구절에 “은혜”는 당시 골로새 교회 내에 이방인 크리스천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평화”는 유대인 크리스천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2**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화”라고 표현했는가(구절-의미-이유): “은혜”와 “평화”란 용어는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용어였다. 바울은 이런 일상적인 용어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치사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란 형용사구를 덧붙였다.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축원하는 “은혜와 평화”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요 평화인 것이다. 이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이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며 용서받은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가리킨다. 본 구절은 골로새 교인들의 축복을 기원하는 바울의 인사말이다.